<h1>나 혼자만 레벨업-59화</h1>  
  
  
 <div class="r0021e90d2f">  
  
  
  
   
  
   
  
   
<p>59화</p>  
<p>"레드 게이트라니, 그게 무슨 소립니까?"</p>  
<p>백호 길드의 사장 백윤호는 연락을 받은 즉시 현장으로 달려왔다.</p>  
<p>훈련 담당자 현기철의 얼굴은 흙빛이었다.</p>  
<p>"그게..."</p>  
<p>"일단 한 번 봐야겠습니다."</p>  
<p>백윤호는 초상집 분위기의 직원들을 지나쳐 게이트 앞에 섰다.</p>  
<p>'진짜 레드 게이트다!'</p>  
<p>백윤호의 얼굴이 굳어졌다.</p>  
<p>레드 게이트가 무엇인가?</p>  
<p>들어가면 다른 세계로 연결되어 그곳의 보스를 잡거나 던전 브레이크가 일어날 때까지 돌아올 수 없는 무서운 곳이었다.</p>  
<p>일단 한번 발을 들이면 끝.</p>  
<p>붉은색으로 변한 게이트는 외부로부터의 영향이 완벽히 차단된다.</p>  
<p>안에서 나오는 것도, 안으로 들어가는 것도 불가능했다.</p>  
<p>백윤호가 게이트 표면을 짚어 보았다.</p>  
<p>역시나 단단히 막혀 있었다.</p>  
<p>'야단났군.'</p>  
<p>이제는 무슨 수를 써도 안의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가 없었다.</p>  
<p>백윤호는 현기철에게 물었다.</p>  
<p>"C급 게이트 아니었습니까?"</p>  
<p>"C급 게이트였습니다."</p>  
<p>"협회에 연락은 해 봤고요?"</p>  
<p>"네. 그런데... 협회 쪽에서는 분명 C급 게이트였다고 자꾸 발뺌을..."</p>  
<p>"이 개자식들이!"</p>  
<p>백윤호가 욕지기를 내뱉었다.</p>  
<p>레드 게이트는 상급 던전에서만 일어나는 현상이었다.</p>  
<p>게이트 너머에 다른 세계가 있는데 거기서 흘러나오는 마력이 겨우 C급 던전 수준밖에 안 된다고?</p>  
<p>애초에 말도 되지 않는 억지였다.</p>  
<p>눈앞의 게이트는 최소한 B급.</p>  
<p>운 나쁘면 A급, 혹은 그 이상일 수도 있었다.</p>  
<p>그런데도 협회에서 이렇게 배짱을 부릴 수 있는 이유는.</p>  
<p>"저희가 가진 마력 측정기로 다시 측정해 볼까요?"</p>  
<p>현기철의 질문에 백윤호가 고개를 저었다.</p>  
<p>"레드 게이트에선 마력이 전혀 새어 나오지 않아서 측정이 안 됩니다."</p>  
<p>재측정이 어렵기 때문이었다.</p>  
<p>문제가 일어난 게이트가 정확히 어떤 등급인지 현재로선 알 방법이 없었다.</p>  
<p>그리고 지금 중요한 건 게이트의 등급이 아니었다.</p>  
<p>"안에 우리 애들 몇이나 들어갔습니까?"</p>  
<p>"12명 들어갔습니다."</p>  
<p>"그중에서 상급 헌터는 몇 정도 되지요?"</p>  
<p>"A급 김철 헌터님이 리더를 맡고 있고, B급 헌터님들이 일곱 분이십니다."</p>  
<p>"A급 하나에 B급 일곱이라..."</p>  
<p>"신입분들... 괜찮을까요?"</p>  
<p>백윤호는 고개를 가로저었다.</p>  
<p>"다 죽었다고 봐야 합니다. 운이 좋다면 A, B급 둘 셋쯤은 살아 나오겠죠."</p>  
<p>말 그대로 운이 아주 좋다면 말이다.</p>  
<p>그만큼 아슬아슬한 숫자였다.</p>  
<p>지금 들어간 멤버들이라면 B급 던전 중에서도 최하급 레벨을 간신히 클리어할 수 있을 수준.</p>  
<p>그 이상은 절대 무리다.</p>  
<p>기적이 있지 않은 이상 신입들이 무사히 돌아올 가능성은 거의 없었다.</p>  
<p>백윤호의 얼굴이 어두워졌다.</p>  
<p>사장의 눈치를 살피던 현기철이 조심스럽게 말했다.</p>  
<p>"저... 실은 우리 신입들 말고 안에 들어간 사람이 또 있습니다."</p>  
<p>백윤호가 고개를 들었다.</p>  
<p>혹시 우연히 근처를 지나가던 상급 헌터가 직원 교육에 호기심이라도 생겨 같이 들어갔나?</p>  
<p>기적이 다른 게 아니다.</p>  
<p>바로 이런 게 기적!</p>  
<p>백윤호의 목소리가 커졌다.</p>  
<p>"그게 누굽니까?"</p>  
<p>"최근에 제가 가장 눈여겨보고 있는 헌터입니다."</p>  
<p>대답은 옆에서 들려왔다.</p>  
<p>백윤호와 현기철이 동시에 돌아보니 땀으로 범벅된 안상민이 가쁘게 숨을 몰아쉬고 있었다.</p>  
<p>"늦어서 죄송합니다. 차가 막히는 바람에."</p>  
<p>집이 멀었던 탓에 안상민이 가장 늦게 도착했다.</p>  
<p>힐끔.</p>  
<p>안상민은 게이트를 곁눈질했다.</p>  
<p>붉게 물든 게이트가 철옹성의 입구처럼 느껴졌다.</p>  
<p>보는 것만으로도 숨이 막혔다.</p>  
<p>'하지만 성진우 헌터라면...'</p>  
<p>숱한 사고를 헤쳐 나왔던 그 남자라면 모두의 예상과 다른 결과를 만들 수 있을지도 모른다.</p>  
<p>막연히 그런 생각이 들었다.</p>  
<p>백윤호가 급히 안상민에게 다가왔다.</p>  
<p>"안 과장이 눈여겨보고 있던 헌터라고요?"</p>  
<p>"그렇습니다."</p>  
<p>아.</p>  
<p>백윤호에게 언뜻 스쳐 가는 기억들이 있었다.</p>  
<p>'그러고 보니...'</p>  
<p>어쩐지 요즘 안 과장이 바쁘게 돌아다닌다 했었다. 아니나 다를까 노리고 있는 헌터가 있었던 거였다.</p>  
<p>안 과장의 눈은 틀림이 없다.</p>  
<p>'혹시...'</p>  
<p>백윤호의 가슴속에 희망의 불씨가 타올랐다.</p>  
<p>"그 헌터 랭크가 어떻게 됩니까? A? 아니면 B?"</p>  
<p>S라면 자신이 모를 리 없으니까.</p>  
<p>한국에 있는 S급이라고 해 봐야 고작 10명 남짓이 전부였다.</p>  
<p>그런데 안상민이 고개를 젓는 게 아닌가?</p>  
<p>'맙소사!'</p>  
<p>내내 굳어 있던 백윤호의 얼굴이 한순간에 풀어졌다.</p>  
<p>"그럼 S급 헌터가 같이 들어갔단 말입니까?"</p>  
<p>안상민은 차분하게 대답했다.</p>  
<p>"아니요. E급입니다."</p>  
<p>백윤호의 얼굴이 벌레 씹은 듯 변했다.</p>  
<p>\*\*\*</p>  
<p>진우는 당황했다.</p>  
<p>'설마 이게 이세계로 이동하는 게이트인가?'</p>  
<p>실제로 보는 건 처음이었지만 인터넷에서 경험담은 읽어 본 적 있었다. 모두들 빨려 들어간다는 표현을 썼다.</p>  
<p>진우도 동의했다.</p>  
<p>게이트가 덮치고 나자 깊은 어둠이 찾아왔고, 어디론가 미끄러지듯 이동하는 기분이 들었다.</p>  
<p>'헉!'</p>  
<p>눈을 떴을 때는 하얗게 눈이 덮인 숲에 서 있었다.</p>  
<p>"여긴 어디야?"</p>  
<p>"던전 안이 아닌 거 같은데?"</p>  
<p>"게이트도 사라졌어!"</p>  
<p>헌터들은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.</p>  
<p>모두가 당황해하는 사이, 진우는 눈을 가늘게 뜨고서 주변을 살폈다.</p>  
<p>'수상한 기척은 없다.'</p>  
<p>시스템에 단련된 덕분에 외딴곳에 떨어져도 금방 침착해질 수 있었다.</p>  
<p>일단 눈에 들어오는 건 나무.</p>  
<p>한국에서 보기 힘든 커다란 침엽수들이 빽빽하게 군집을 이뤄 하늘을 향해 뻗어 있었다.</p>  
<p>나무 위에 가득 얹혀 있는 눈들이 위태로워 보인다고 생각하며 시선을 아래로 내린 순간.</p>  
<p>누군가와 눈이 마주쳤다.</p>  
<p>진우와 마찬가지로 사주를 경계하던 A급 헌터 김철이었다.</p>  
<p>'...'</p>  
<p>'...'</p>  
<p>잠시 서로를 노려보던 두 사람이 이내 고개를 돌렸다.</p>  
<p>어느새 다가온 한송이가 옷깃을 가볍게 잡아당겼다.</p>  
<p>"저기... 지금 우리들 뭔가 잘못된 거죠?"</p>  
<p>겁먹은 눈동자.</p>  
<p>당당한 척하던 태도는 이제 온데간데없었다.</p>  
<p>진우가 갑자기 한송이의 얼굴을 향해 손을 훅 뻗었다.</p>  
<p>'...?'</p>  
<p>한송이의 눈이 커졌다.</p>  
<p>텁!</p>  
<p>진우의 손에 붙들린 화살이 표적을 맞히지 못해 원통하다는 듯 부르르 몸을 떨었다.</p>  
<p>한송이의 미간을 노리고 날아든 화살이었다.</p>  
<p>"아, 아..."</p>  
<p>겨우 상황을 파악한 한송이의 얼굴이 파랗게 질려 갔다.</p>  
<p>그런데 비명은 다른 곳에서 들렸다.</p>  
<p>"꺄아아아악!"</p>  
<p>"으, 으악!"</p>  
<p>털썩.</p>  
<p>관자놀이에 화살이 박힌 남자 헌터가 피거품을 물고 쓰러졌다.</p>  
<p>눈 위로 피가 번져 나갔다.</p>  
<p>"으, 으으..."</p>  
<p>헌터들은 신음을 흘렸다.</p>  
<p>한송이를 노린 것과 동시에 날아온 화살이었다.</p>  
<p>덕분에 진우가 화살을 낚아채는 장면을 아무도 보지 못했다.</p>  
<p>"저기다!"</p>  
<p>"저놈들이야!"</p>  
<p>B급 헌터 하나가 까마득히 멀리 떨어져 있는 나무 위를 가리켰다.</p>  
<p>그의 손가락이 가리키기 훨씬 전부터 진우와 김철의 시선은 이미 그리로 향해 있었다.</p>  
<p>거기에는 두 명이 서 있었다.</p>  
<p>'두 명? 아니, 두 마리라고 해야 하나.'</p>  
<p>백발과 흰 피부에 은색 눈.</p>  
<p>그리고 종족의 특징이라 할 수 있는 뾰족한 귀.</p>  
<p>특유의 아름다운 외모와 상급 던전에서만 볼 수 있다는 희귀성 때문에 꽤 유명한 마수들이었다.</p>  
<p>'아이스 엘프.'</p>  
<p>혹은 백귀.</p>  
<p>놈들을 만나 보지 못한 이들은 주로 아이스 엘프라는 단어를 썼고, 놈들을 상대해 본 경험이 있는 헌터들은 하나같이 백귀라 불렀다.</p>  
<p>엘프 같이 아름다운 이름은 녀석들과 어울리지 않는다면서.</p>  
<p>진우는 선배 헌터들이 왜 백귀들에게 이를 부득부득 갈았는지 짐작할 수 있었다.</p>  
<p>'...웃고 있다.'</p>  
<p>두 놈은 활을 내리고서 헌터들을 향해 징그러운 웃음을 보내왔다.</p>  
<p>마치 먹음직스런 음식을 눈앞에 두고 어느 걸 먼저 먹어야 할지 고민하는 것처럼.</p>  
<p>'그 고민의 결과가 이거냐?'</p>  
<p>진우의 눈매가 날카로워졌다.</p>  
<p>가장 좌측에 한 발.</p>  
<p>그리고 가장 우측에 또 한 발.</p>  
<p>우연이 아니었다.</p>  
<p>호살에 맞은 헌터는 얼마 전 C급으로 각성했다는 30대 남자.</p>  
<p>한송이를 제외하면 일행들 중 가장 약했던 이였다.</p>  
<p>그리고 다른 한 발은.</p>  
<p>'한송이를 노렸지.'</p>  
<p>제일 약한 두 사람을 노리고 쐈던 거다.</p>  
<p>'시스템이 아니었다면 내 머리에 가장 먼저 화살이 꽂혔겠지.'</p>  
<p>백귀들의 얕은 계산이 진우의 심기를 불쾌하게 만들었다.</p>  
<p>진우는 백귀들이 볼 수 있게 손을 내밀고서 화살을 아작 냈다.</p>  
<p>콰직!</p>  
<p>그걸 도전으로 받아들였는지 화살을 쏜 백귀가 진우를 향해 목을 긋는 시늉을 했다.</p>  
<p>피식.</p>  
<p>진우는 웃었다.</p>  
<p>그러나 눈은 웃고 있지 않았다.</p>  
<p>'...너는 내 손으로 죽인다.'</p>  
<p>마수의 같잖은 도발에 진우는 대답 대신 싸늘한 시선을 보냈다.</p>  
<p>곧 백귀들이 나무 아래로 사라졌다.</p>  
<p>"아무래도 우릴 반기는 건 아닌 거 같군."</p>  
<p>드디어 김철이 입을 열었다.</p>  
<p>유일하게 A급인 그가 입을 열자 다들 약속이라도 한 듯 그에게로 시선을 집중했다.</p>  
<p>사실 그는 이번 공격대의 리더이기도 했다.</p>  
<p>"지금쯤 알아차린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군. 여긴 레드 게이트 안이다."</p>  
<p>김철은 당연하다는 듯이 말을 놓았다.</p>  
<p>물론 불평하는 사람은 없었다.</p>  
<p>"그 말은 우리 모두가 죽거나 던전 브레이크로 게이트가 열릴 때까지는 아무도 여기 들어올 수 없다는 거지."</p>  
<p>모두가 나직한 신음을 터트렸다.</p>  
<p>"으음."</p>  
<p>"으..."</p>  
<p>혹시나 모를 구조의 손길이 기대할 수 없다는 사실이 큰 충격으로 다가왔다.</p>  
<p>김철은 말을 이었다.</p>  
<p>"여기 있다간 얼어 죽던가 놈들의 습격에 당한다. 난 혼자서라도 여길 클리어하고 밖으로 나가겠다. 같이할 사람 있나?"</p>  
<p>김철의 강한 눈빛과 넓은 어깨가 유난히 더 믿음직스러웠다.</p>  
<p>잠시 서로의 눈치를 보던 헌터들이 이구동성으로 함께할 의사를 밝혔다.</p>  
<p>"같이 가죠."</p>  
<p>"저도 끼겠습니다."</p>  
<p>"살아서 돌아갑시다."</p>  
<p>"저도 돕겠습니다!"</p>  
<p>하지만 김철은 돕겠다고 다가오는 남자 헌터의 가슴을 밀쳐 냈다.</p>  
<p>"컥!"</p>  
<p>힘 조절을 한다고 하긴 했지만 A급의 완력이었다.</p>  
<p>남자 헌터는 뒷걸음질 치며 가슴에서 올라오는 통증에 미간을 찡그렸다.</p>  
<p>"너는 빼고."</p>  
<p>"예?"</p>  
<p>"그리고 너, 너, 너, 너도."</p>  
<p>김철은 남자 말고도 몇 사람을 더 가리켰다.</p>  
<p>그중에는 진우와 한송이도 포함되어 있었다.</p>  
<p>순간 진우의 미간이 꿈틀거렸다.</p>  
<p>모두 다섯 명.</p>  
<p>C급 이하 헌터들이었다.</p>  
<p>"안 됐지만 너희들까지 데려갈 수는 없다."</p>  
<p>"뭐라고요?"</p>  
<p>"레드 게이트에 대해서 아는 게 있나?"</p>  
<p>남자는 고개를 저었다.</p>  
<p>"여기서 하루가 바깥의 1시간이다. 최악의 경우 던전 브레이크나 보스를 잡기까지 수개월이 걸릴 수도 있다. 그런 상황에서 혹까지 붙이고 다닐 수는 없어."</p>  
<p>"우리가 혹이라고요?"</p>  
<p>김철에게 호명된 헌터들이 일제히 발끈했으나 김철이 눈을 부릅뜨자 모두 입을 다물었다.</p>  
<p>김철은 선심 쓰듯 말했다.</p>  
<p>"너무 섭섭해하지 말도록. 우리가 보스를 처치할 때까지 살아남으면 너희도 무사히 돌아갈 수 있는 거니까."</p>  
<p>"아무리 그래도..."</p>  
<p>호명된 헌터들은 김철 곁으로 간 헌터들에게 도와 달라는 눈빛을 보냈으나 아무도 나서는 이가 없었다.</p>  
<p>다들 시선을 피하기 바빴다.</p>  
<p>그때.</p>  
<p>"저기요."</p>  
<p>김철 팀에 있는 B급 여자 헌터 하나가 손을 들었다.</p>  
<p>'...?'</p>  
<p>김철이 돌아보자 여자가 진우를 가리켰다.</p>  
<p>"이쪽에서 저쪽으로 가는 건 되죠?"</p>  
<p>"...맘대로."</p>  
<p>여자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진우 옆으로 왔다.</p>  
<p>김철은 여자와 진우를 번갈아 보며 코웃음 치더니 큰 소리로 말했다.</p>  
<p>"여기 한 자리 남으니 그쪽에서 딱 한 명만 더 받아주겠어."</p>  
<p>"저, 저요!"</p>  
<p>아까 김철에게 밀려났던 남자 헌터가 행여 김철의 마음이 바뀌기라도 할까 봐 후다닥 뛰어갔다.</p>  
<p>저게 정상이었다.</p>  
<p>진우도 그렇게 생각했다.</p>  
<p>'이 여자가 이상한 거지.'</p>  
<p>진우는 자기 옆에 선 여자를 의아하다는 눈빛으로 쳐다보았다.</p>  
<p>진우와 눈이 마주친 여자는 남들이 못 듣게 자그마한 소리로 말했다.</p>  
<p>"김철 저 사람, 화살이 날아오는 거 보지도 못했어요."</p>  
<p>상급 헌터라고 모든 스탯이 다 높을 수는 없다.</p>  
<p>A급이지만 민첩 스탯이 낮을 수도 있다.</p>  
<p>스탯 개념을 아는 진우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.</p>  
<p>"그래서요?"</p>  
<p>그러자 여자가 싱긋 웃었다.</p>  
<p>"당신, E급 아니죠?"</p>  
  
 </div>  
  
  
  
 </div>  
  
  
  
 <div style="margin-top: 20px;">